장보배의 24번의 계절 ㉓ 대설_인제 길을 걷다



▶한줄 요약
한겨울을 상징하는 소설과 동지 사이의 대설은 농가가 일 년을 마무리하고 농한기에 들어가는 절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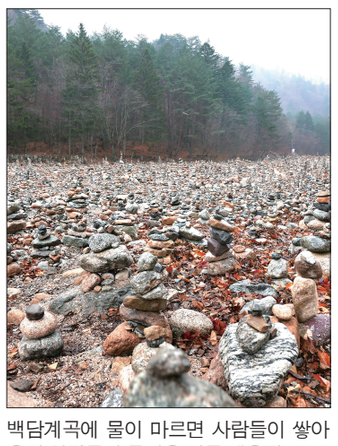
땅이 숨을 고르며 겨울이 머무는 때

눈은 하늘에서만 내리는 것이라고 누가 이야기했을까. 아니, 그럴 리 없다.

하늘을 따라 오르는 내설악 저 깊은 곳. 여름이면 흐르는 물에 안겨 보이지 않지만 겨울이면 백골 같은 진심이 드러나는 골짜기가 있다.

수천수만의 돌로 된 눈송이가 하늘을 향해 손을 뻗는 세상. 어느 겨울 하늘에서 떨어지는 눈들이 그 손을 맞잡아 주는 날, 세상은 하얀 침묵으로 고요해질 것이다. 지절대는 온갖 마음도 마침내 잠이 들고 말 터다.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에 자리한 천년고찰 설악산. 수심교에서 바라본 백담사 풍경이다. 대설 예보가 내린 날, 내설악의 운무가 가득하다.


백담계곡에 물이 마르면 사람들이 쌓아 올린 석탑들이 물길을 가득 채운다.


백담사 안에서 바라본 금강문과 곧게 뻗은 수심교.


만해기념관 앞에 있는 만해 한용운 스님(1879~1944)의 흉상.


봉정암과 오세암 등 암자를 지닌 내설악 대표 사찰 백담사.

백담사를 향해

강원도 인제군 북면. 내설악 깊은 곳을 지키고 선 천년고찰 백담사. 강원도를 대표하는 사찰로 명성이 높은 이곳은 그 지리적 이유로 인해 여전히 신비의 산성(山城) 같은 모습을 지닌다.

비와 눈이 많은 계절마다 한 해의 얼마간은 가차 없이 산문이 막히는 곳. 그와 함께 인적도 끊기고 마는 산중 고찰. 지금도 험난한 산길에 일반 차량은 출입이 금지되고 지정된 셔틀버스를 타야만 백담사에 다다를 수 있다.

요즘 세상에 못 갈 길이 어디 있느냐 할 수도 있지만, 막상 그 길에 오르면 생각은 달라지고 말 터다. 구불구불 똬리를 트는 설악의 가파른 산길, 깊이 들어서는 만큼 아찔해지는 고도의 낭떠러지는 버스를 가득 메운 관광객들의 우렁찬 목소리마저 긴장된 적막으로 바꾸고 마는 위력이 있다.

오직 노련한 버스 기사의 운전대만이 춤을 추듯 회전하고, 그렇게 달리다 보면 어느새 백담사 입구에 도착한 버스. 이제 몇 걸음만 옮기면 마치 다른 별의 성처럼 설악을 지키는 백담사와 마주하게 될 것이다.

세속의 땅에서 심산유곡 안에 숨겨져 있던 불도의 성지로 들어서는 길, 그 길은 하나의 다리로 이어진다. 백담사 수심교(修心橋)다.

마침내 길고 긴 다리 위에 올라선 순간, 눈앞에 펼쳐지는 것은 웅장한 회색의 소용돌이. 하지만 그것은 계곡의 물이 아니다. 끝없이 높고 낮게 이어지는 석탑의 물결. 크고 작은 돌들이 하늘을 향해 오르는 수천수만 석탑의 군무다.

대설 예고

백담사의 겨울을 본 적이 있는 이라면 누구나 쉬이 잊지 못할 풍경이 있다. 바로 백담사 앞을 가로지르는 백담 계곡, 그 물길을 가득 메운 석탑의 향연이다.

그 누가 첫 돌을 올렸는지 알 수 없지만, 이 산 깊은 골짜기를 가득 메운 숱한 석탑들은 모두 백담사를 찾았던 이들이 남긴 발자취인 셈이다.

계곡의 돌멩이를 하나둘 정성껏 쌓아 올린 무채색의 돌탑. 이는 간절한 소망의 등대 같기도 하고, 어쩌면 묘비, 또 그 자체로 유령처럼 보이기도 한다.

마침 이날은 눈이 예고됐던 날. 습기 머금은 산이 뿜어내는 운무와 땅까지 내려앉은 회색빛 하늘의 기운은 돌탑과 어우러져 비현실적인 장관을 이루었다.

언제던가. 오래전 이곳을 찾았던 어느 날, 계곡을 말 없이 바라보던 백담사의 스님이 전해주신 이야기다.

"참 신기합니다. 똑같은 저 돌탑을 보면서도 보통 사람들은 '아, 나도 얼른 가서 하나 쌓고 소원을 빌어야지!' 합니다. 그런데 스님들께서는 '아, 전부 시원하게 물에 씻겨가면 좋겠다!' 하시더라고요(웃음)."

무욕과 해탈을 기원하는 수행처. 그 앞에 무한증식하듯 솟아나는 소원의 탑은 어울릴 듯 어울리지 않는 풍경임이 틀림없었다.

"간절한 소원을 떠올리며 탑을 쌓아 보세요. 하지만 여름이면 다 쓸려 갈 겁니다."

스러질 것을 알면서도 탑을 쌓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잠시 생각에 잠긴 사이 뒤이은 스님의 말씀이 작은 위로가 되어 남는다.

"그때까지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눈은 모든 소리를 삼킨다. 하얗게. 숱한 마음들이 저마다 외쳐 대는 돌탑의 무리. 여름에는 요동치며 흐르는 계곡물이, 겨울이면 대설이 이 산을 덮는 날만이 저 소리를 잠재울 것이다.

그리고 이제 곧 그날은 다가올 터다. 12월, 21번째 절기인 대설(大雪)이 시작되었으니까.

눈이 내리면

소설과 동지 사이의 '대설'은 일 년 중 가장 눈이 많이 내린다는 절기다. 게다가 이곳은 강원도. 이미 11월 중순부터 진눈깨비가 흩날렸으니 곧이어 백색의 세상으로 바뀔 것이다.

설악산은 눈과 잘 어울리는 산이다. 극과 극은 이어진다고 했던가. '악' 소리가 날 만큼 험준해 설악산이라는 산사람들의 농담처럼, 이곳의 강한 산세와 순백의 풍경은 되려 극강의 조화를 이룬다.

대설은 다가올 동지와 함께 한겨울을 상징하는 절기. 농가에서는 일 년을 마무리하고, 완전한 농한기에 들어선 때다. 옛사람들이 전하는 대설의 모습은 '초후(初候)에는 산박쥐가 울지 않고, 중후(中候)에는 범이 새끼를 치며, 말후에는 여주가 돋아나는' 시절.

예로부터 이 무렵 내리는 눈은 '보리 이불'이라 하여 다음 해에 풍년이 들고 겨우내 따뜻할 것을 예고하는 소식으로 전해진다. 폭신한 눈에 덮인 땅이 동해(凍害)를 적게 입어 도리어 풍년을 이루는 것이다. 어디 그것이 보리농사 짓는 것만의 일일까. 모든 것이 웅크리고 기운을 아낀다는 겨울이라지만, 뭇 생명 살아 숨쉬는 산천은 그리 쉽게 잠들지만 않는다.

얼음이 송곳처럼 배기는 한겨울의 땅속에서도 끊임없이 제 심장을 두드리며 생명을 움트는 것. 새날을 부르는 목소리는 따뜻한 봄이 아닌 그때 더욱 강해지는 법이니까.

설산의 오도송

1917년 12월 3일. 대설을 며칠 앞에 두었던 그 밤. 백담사 오세암에서 좌선에 들었던 만해 한용운 스님은 자신의 오도송을 노래했다.

사나이 가는 곳이 바로 고향인 것을(男兒到處是故鄕)
나그네 인생 시름 속에 길게 헤매이네(幾人長在客愁中)
깨달음의 고함 악! 하고 외치니 삼천세계 깨지고(一聲喝破三千界)
눈 속에 붉은 복사꽃은 조각조각 흩날리네(雪裡桃花片片紅)

영하 20도를 내리꽂는 내설악이다. 살을 에는 바람이 몰아치던 그날, 39살의 청년 스님은 바람에 쓸려 물건이 툭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깨달음을 얻었다 했다. 비수처럼 박힌 깨침의 소리. 그것은 겨울바람을 타고 온 피안(彼岸)의 전령이었을까.

백담사는 그 누구보다 만해 한용운 스님으로 대표되는 사찰이다. 27살의 나이로 백담사에서 출가한 이후 〈조선불교유신론〉과 팔만대장경을 풀어 해석한 명저로 평가되는 〈불교대전〉 간행. 월간 잡지 〈유심〉을 창간하고, 백담사 오세암에서 불후의 명작 〈님의 침묵〉을 탈고해 발행한 것. 무엇보다 3·1 운동의 주체가 돼 우리 민족과 이 땅에 해방의 물꼬를 틔우기까지. 그의 삶은 늘 이 내설악 산중 고찰의 품에서 꿈틀거렸다.

일제강점기, 단 하루도 쉽지 않았을 스님의 어느 날에도 숱한 꿈과 희망은 저 석탑들처럼 피어올랐을 것이다. 스러질 것을 알면서도 끊임없이 쌓아 올린 석탑은 그 자체로 위대하다.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것을 쓰다듬는 눈송이 내리는 날, 저 계곡도 편안히 잠이 들겠지.

그리고 내년 여름이 오기 전까지, 그 모든 소원 다 이루어지기를. 〈작가〉

